

朝鮮時代 妙香山 普賢寺 刊行 版本考

A Study of the Books Published at Bohyun Temple
in Mt. Myohyang of Chosun Dynasty

禹 秦 雄 (Woo, Jin-Woong)*

◁ 목 차 ▷

1. 緒 言	3.3 禮儀部
2. 普賢寺의 歷史	3.4 文集部
2.1 創建과 重創	3.5 其他
2.2 史庫와 藏板	4. 時期別 分析
3. 主題別 分析	5. 活動 刻手
3.1 經典部	6. 結 言
3.2 宗義部	<참고문헌>

< 초 목 >

본고는 북한 지역의 주요 사찰 판본 중 다수를 차지하는 普賢寺에서 간행된 45종의 현전 판본을 분석한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제별로는 宗義部가 약 42%로 가장 많으며, 宗義部는 모두 禪宗 계통의 경전이다.
2. 간행 시기는 16-18세기말까지로 특히 17세기의 1680년대 판본이 가장 많았다.
3. 普賢寺 本寺에서는 크게 3기에 걸쳐 開板하였다. 그 중 2기에 해당되는 1680년대에는 약 10년간 주요 大乘經典과 禪宗書를 대대적으로 간행하였으며, 보현사 각수뿐만 아니라 各道의 각수가 참여하여 판각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4. 普賢寺로 옮긴 經板은 대부분이 普賢寺 末寺에서 板刻하였지만 『雪巖亂藁』의 경우 강원도에서 板刻하여 옮겨오기도 하였다.
5. 刻手 중 특히 '別訓'은 僧將 출신으로 18세기 초중엽 대표적인 각수로 활동하였다.

要語: 普賢寺, 妙香山, 寧邊, 妙香山普賢寺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jwoong78@naver.com)

접수일: 2012년 5월 23일 최초심사일: 2012년 6월 5일 심사완료일: 2012년 6월 16일

<ABSTRACT>

In this study, we tried to analyze the book published in Bohyun Temple(普賢寺) in Chosun Dynasty. According to the study, we could know 45 kinds of the books were published in the temple. The analysed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 distribution by subject were JongYi(宗義) part were mainly 42%, they were mostly related with Zen sect(禪宗).
2. The books chiefly published between 16th and 18th century, especially books in 17th were majority of all.
3. Bohyun Temple publishing activity was divided 3 times. Among them 1680's is regarded as second phase, during that time lots of the Mahayana Sutras(大乘經典) and Zen(禪) related books were published.
4. The woodblocks moved to the temple were mainly from branch temples, but some of them were engraved in Gangwon provinces.
5. Engraver 'Byul-Hoon(別訓)' came from a head-monk soldier in 18th, he was a representative engraver in the temple.

Key words: Bohyun Temple, Mt. Myohyang, Youngbyun, Bohyun Temple in Mt. Myohyang

1. 緒言

普賢寺는 지금의 평안북도 향산군 향암리에 위치하고 있는 대사찰이자 북한의 대표적인 사찰이다. 또한 西山大師 休靜의 입적지로도 알려져 있으며 사찰을 둘러싼 묘향산과 함께 대표적인 관광지로 각광받는 곳이기도 하다.

보현사는 1028년 探密에 의해 安心寺라는 사찰에서 비롯되었고, 1043년 제자인 宏廓에 의해 대규모 사찰로 확장되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1000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보현사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걸쳐 명성 있는 승려들이 계속해서 배출되었으며, 임진왜란 당시에는 국가기록물인 實錄 등을 보관하는 史庫의 기능도 하였다.

특히 16세기부터는 불교 경전뿐만 아니라 역대 禪師의 문집과 같은 많은 경전이 간행되었으며 經板의 대규모 보관처이자 봉안처가 되기도 하였다.

경전의 관각·간행과 經板 보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보현사는 20세기에 들어와 북한의 정치적인 특수한 환경 속에서 종교적인 억압도 있었으나 사찰 내에는 유구한 역사를 증명하는 많은 문화재가 남아 있어 보현사를 포함한 주변의 유물·유적들은 1947년에 묘향산역사박물관으로 지정되었다. 1983년에는 ‘팔만대장경보존고’라는 과학적 보존 건물을 건립하여 八萬大藏經의 後刷本과 조선시대 경판 등 많은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다.

사찰의 역사나 규모뿐만 아니라 현전 판본으로 볼 때 북한 지역의 사찰 중에서 가장 많은 경전이 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서지적인 접근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전하는 45종의 판본을 대상으로 하여 主題別·時期別 刊行, 活動 刻手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普賢寺의 歷史

2.1 創建과 重創

2.1.1 創建

보현사가 언제 창건되었는지에 관한 사료는 부족하다. 그러나 보현사 내에 세워진 碑文¹⁾의 기록에 의해 사찰의 창건과 규모에 대하여 추측할 수 있다.

妙香山 普賢寺는 探密, 宏廓 두 스승이 처음 지은 것이다. 探密의 姓은 金氏이며 黃州 龍興郡 사람이다. 25세에 出家하여 苦行을 하며 僧服 한 벌과 鉢盂 하나만을 가졌으며 유명한 스승을 찾아서 화엄교관을 전수받았다. 1028년에 延州山에 蘭若²⁾를 지어 머물렀다. 宏廓은 1038년에 探密의 제자가 되었고, 뜻을 같이 하여 氣가 화합하였고 德이 충만하여 그의 명성이 널리 퍼져 많은 학자들이 모여들었다. 壬午年(1042)에는 동남쪽에 100여보 떨어진 곳에 243칸의 精舍를 지어 산의 이름을 妙香, 절을 普賢이라 하였다.³⁾

또한 『東師列傳』에는 “普賢寺는 妙香山의 대표적인 큰 절로 高麗顯宗 19年(1028)에 探密祖師가 처음 개산하여 安心寺라 하였으며, 正宗 8年(1042) 探密의 조카이자 제자가 된 宏廓法師가 安心寺 동쪽의 백보 되는 곳에 자리를 잡아 大禪刹을 創建하여 普賢寺라 명명한 것이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1028년에 探密祖師가 묘향산에 터를 잡아 安心寺라는 작은 사찰을 짓고, 1042년에 宏廓에 의해 안심사 인근에 보현사를 창건하여 묘향

1) 북한 국보 149호로, 高麗仁宗 20年(1142)에 金富軾이 짓고, 文公裕가 글씨를 썼다. 높이 2.45m, 너비 1.12m이며, 碑의 상단에 ‘妙香山普賢寺之記’라 기록되어 있다.

2) 고요한 곳, 사원을 말함.

3) 朝鮮總督府內務部地方局, 『朝鮮寺刹史料』(京城: 朝鮮總督府內務部地方局, 1911), 245-246. “妙香山普賢寺探密宏廓二師之所始作也探密本姓金氏黃州龍興郡人二十五出家刻意苦行一衲一鉢非大寒則不履日一食確乎戒勤乎學就名師 傳華教觀於契丹太平八年戊辰歲入延州山營蘭若以口居口宏廓探密之猶子以重熙七年戊寅歲來而爲弟子志一而氣合德充而聲宏學者聞風福湊地不足容以□□□□年壬午歲於東南隅一百許步擇地精舍凡二百四十三間名其山曰妙香其寺曰普賢 …(省略)”

산을 대표하는 대사찰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2.1.2 重創

‘普賢寺’라는 명칭으로 高麗靖宗 8年(1042)에 창건된 이후 보현사는 크게 7회에 걸쳐 大重創되었다. 보현사의 重創 및 기타 沿革⁴⁾을 보면 11세기 후반에 達寶大師가 重創하였고, 이후 仁宗 19年(1141) 金富軾이 지은 普賢寺碑를 건립하였으며, 恭愍王 10年(1361)에 懶翁禪師가 三創하였다.

조선시대에는 世宗 30年(1448)에 海正大師가 四創, 中宗 27年(1532)에 燒失로 인해 智圓法師가 五創하였다. 壬辰倭亂 후 仁祖 12年(1634)에는 虛白堂 明照大師, 碧巖堂 覺性大師의 주도하에 六創되었다.

이후 極樂殿(1749), 天王門(1774), 明月堂(1792), 靈山殿(1886) 등 사찰 내 여러 건물이 건립되었으며, 20세기에 들어와 6.25 전쟁으로 인해 大雄殿과 萬歲樓 등의 주요 건물이 화재를 입어 복구하게 이르렀다. 또한 보현사는 1947년부터 妙香山歷史博物館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치적인 영향으로 오늘날까지 불교 본래의 의미를 지닌 곳이기보다는 북한 주민의 휴식처나 관광지로서의 면모가 뚜렷하기도 하다.

1983년에는 사찰 내에 과학적 시설을 갖춘 팔만대장경정보존고를 건립하여 팔만대장경 후쇄본을 비롯한 여러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다.

<표 1> 普賢寺 重創 및 주요 沿革

時期	重創 및 주요 沿革
1028	探密이 安心寺 創建
1042	宏廓이 普賢寺·觀音殿 創建
1096	達寶大師 重創
1141	普賢寺碑 建立(金富軾 書)
1361	懶翁禪師 三創

4) 韓國佛敎宗團協議會, 『北韓寺刹研究』(서울: 寺刹文化研究院, 1993), 236-238.

時期	重創 및 주요沿革
1448-1449	海正大師 四創
1449-1500	道泉禪師 佛像改金
1532	達夫 知圓法師 五創
1634	明照大師, 覺性大師 六創
1635	冥府殿 曹溪門 解脫門 建築
1681	法華經, 華嚴經 經板 製作
1725	南坡大師가 萬歲樓 重建
1749	普祐大師가 極樂殿 創建
1761	南坡大師, 香岳大師 七創
1762	南坡大師가 大雄殿 重建
1763	南坡大師가 水月堂 重創
1774	天王門 建築
1792	明月堂 創建
1873	眞常殿 創建
1886	知應大師가 靈山殿 創建
1893	寶運이 萬壽閣 創建
1897	繼祖庵 創建
20世紀	6.25 大雄殿/萬歲樓 화재, 1975년 大雄殿 복구, 1979년 萬歲樓 복구, 1947년 妙香山歷史博物館 건립, 1983년 팔만대장경보존고 설치

이밖에 보현사의 釋迦如來舍利浮屠碑는 신라시대 慈藏律師가 통도사에 봉안된 석가여래 사리가 임진왜란으로禍를 당하자 四溟大師(1544-1610)가 묘향산과 통도사에 분리 봉안되었으며,⁵⁾ 현재 국보 40호인 보현사를 비롯해 본사와 부속암자의 여러 유적·유물들이 북한문화재로 지정⁶⁾되어 있다.

5) 韓國佛敎研究院, 『한국의 사찰 17 - 북한의 사찰』 (서울: 일지사, 1978), 103.

6) 국보 7호 普賢寺9層塔, 국보 41호 普賢寺 上元庵, 국보 42호 普賢寺 祝聖殿, 국보 43호 普賢寺 佛影臺, 국보 57호 普賢寺 觀音殿, 국보 141호 普賢寺 靈山殿, 국보 144호 妙香山 普賢寺8角13層塔, 국보 149호 妙香山普賢寺碑.

2.2 史庫와 藏板

보현사는 임진왜란 때 西山大師을 중심으로 僧兵들이 반격한 곳이며, 全州史庫에 안치되어 있던 『實錄』과 『高麗史』를 옮겨 보관한 史庫로서의 기능도 하게 되었다. 임란 중의 『實錄』에는 宣祖 31年(1598)에 “『實錄』을 前年 9월에 江華에서 寧邊의 普賢寺 別殿으로 옮겨 安置했다는 기록,⁷⁾ 同王 32年(1599)에 “春秋館 및 承政院의 日記 등 각종 문서를 普賢寺로 옮겨 보관하였다는 기록,⁸⁾ 同王 33年(1600)에는 檢閱 鄭崐이 王妃의 揮毫 질차 때문에 실록과 의궤를 상고해 오는 일로 妙香山으로 갔다는 기록⁹⁾의 기사를 볼 수 있다.

普賢寺別殿에 보관되었던 『實錄』은 壬亂 이후 寧邊客舍로 이전하였고, 宣祖 36年(1603)에 謄書와 인쇄의 편의를 위하여 江華에 이전하여 재인쇄하였다. 宣祖 39年(1606)에 인쇄가 끝나자 妙香山史庫를 보관처로 재지정하여 仁祖 6年(1628)까지 약 22년 동안 보관하였고, 그 후 江華史庫로 이전되었다.¹⁰⁾

보현사는 많은 경전이 간행되었으며 보현사에서 관각된 경판뿐만 아니라 주변 末寺 등지에서 관각된 수많은 經板의 보관처가 되기도 하였다.

책판목록에 수록되어 있는 관련 내용을 보면 憲宗 6年(1840)에 편찬된 『各都册板目錄』에는 20종의 寧邊府 소장 목판¹¹⁾ 외에 추가로 29종의 사찰소장 책판이 수록되었다. 목록 중 첫 번째인 『華嚴經』의 하단에는 ‘以下香山寺在’라는 기록이 있는데 현전 보현사판과 비교해보면 ‘香山寺在’라는 의미는 묘향산 내에 있는 사찰이 아니라 普賢寺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憲宗 6年(1840)에 편찬된 『各都册板目錄』의 영변지역 사찰판의 수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7) 『朝鮮王朝實錄』 宣祖 31年 2月 戊午條.
 - 8) 『朝鮮王朝實錄』 宣祖 32年 7月 乙卯條.
 - 9) 『朝鮮王朝實錄』 宣祖 33年 7月 戊辰條.
 - 10) 韓國佛教宗團協議會, 252.
 - 11) 『周易大全』, 『周易諺解』, 『書傳大全』, 『書傳諺解』, 『詩傳大全』, 『詩傳諺解』, 『論語大全』, 『論語諺解』, 『孟子大全』, 『孟子諺解』, 『中庸大全』, 『中庸諺解』, 『大學大全』, 『大學諺解』, 『心經』, 『古經重磨方』, 『喪禮備要』, 『三韻通考』, 『史略』, 『鳴皋集』.

華嚴經	18冊	以下香山寺在	初心	1冊
圓覺經	6冊		觀心經	1冊
法華經	10冊		梵網經	1冊
楞嚴經	10冊		恩重經	1冊
金剛經	2冊		大彌陀經	1冊
蓮宗寶鑑	2冊		小彌陀經	1冊
說話	30冊		十王經	1冊
傳燈錄	30冊		高王經	1冊
起信論	2冊		玉樞經	1冊
緇門	2冊		諸般冊	1冊
禪要	1冊		八陽經	1冊
書狀	1冊		延命經	1冊
禪要都序	1冊		地藏經	3冊
節要	1冊		造像經	1冊
龜鑑	1冊			

위와 같이 당시 소장된 전체 경판의 수량과 관련하여 이 목록에 표기된 것은 冊數를 의미하므로 당시 소장된 경판의 전체수량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연세대 소장의 『妙香異蹟』¹²⁾에는 보현사에 소장된 목판은 총 89種 4,211板으로 되어 있으나 소장 목판을 조사한 시기가 언제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¹³⁾ 이후 6.25 전쟁 중에 大雄殿, 萬歲樓 등 사찰의 주요 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기에 소장된 경판 역시 어떠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제시된 보현사 소장은 6.25 이전에 八萬大藏經 1,159卷, 佛經木板 4,296枚 외 다수의 古書가 있었으나 전쟁으로 건물 20여동, 문화유물 4,554점, 고서 2,900여책이 燒失되었다고 하였다. 이후 1983년에 팔만대장경보존고를 설치하여 많은 경전과 경판을 보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현황은 알 수가 없다. 다만 2005년 만불신문의 기사¹⁴⁾와 2011년 보현사에서 개최한 ‘대장경 판각 천년 기념 남북불교 합동법회’의 불교신문 기사¹⁵⁾에 의해 소장 팔만대장

12) 1914년 일본인이 기록한 普賢寺 관련 종합조사보고서이다.

13) 許興植, “延世大所藏 妙香山資料의 價値,” 『新羅文化』 第19輯(2001), 294-295.

14) 만불신문 2004년 12월 30일, 『사진으로 보는 불교 100년 / 보현사』, “1983년 팔만대장경보존고를 설치하여 고려·조선시대의 經板 3,000점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경과 경판에 대해 그 대략은 짐작할 수 있다.

3. 主題別 分析

현전하는 普賢寺版 45종을 대상으로¹⁶⁾ 經典部, 宗義部, 禮懺部, 文集部, 其他 등의 주제별로 나누어 대략적인 간행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3.1 經典部

3.1.1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16世紀)

중국의 高僧 鳩摩羅什이 부모의 은혜에 대하여 설한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을 한글로 번역한 경전으로, 서울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卷末에는 ‘華藏刊移鎮香山普賢寺’라 기록되어 華藏庵에서 판각하여 普賢寺로 經板을 옮겨 간행하였다.

형태적 특징은 邊欄은 四周雙邊이고, 半郭의 크기는 20.6×14.4cm의 無界이며, 한 면은 8行 16字에 版心部分은 大黑口에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이다.

表題는 ‘恩重經’, 版心題는 ‘은둥경언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확한 간행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형태적 특징으로 보아 壬亂前에 간행된 판본이다.

3.1.2 「金剛般若波羅蜜經」(1680)

鳩摩羅什이 번역한 經文을 唐 六祖 慧能(638-713)의 해석 내용을 추가한 것

15) 불교신문 2011년 9월 17일. “팔만대장경보존고에는 해인사에서 후쇄한 팔만대장경 6,793권 전질을 소장하고 있다.”

16) 普賢寺 本寺 開刊本 외에 普賢寺 末寺나 기타 사찰에서 板刻하여 보현사에 經板을 옮긴 기록이 있는 판본도 普賢寺版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으로, 불교의 空 사상을 중심사상으로 하고 있다.

肅宗 6年(1680)에 開板된 경전으로, 고려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卷末에 '康熙十九年庚申六月日平安道寧邊妙香山普賢寺開板'의 刊記가 있다. 형태적 특징은 邊欄은 四周單邊이고 半郭의 크기는 25.7×18.7cm의 有界이며, 한 면은 9行 19字에 版心部分의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 版心題는 '金剛經'이다.

3.1.3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1681)

'圓覺經'이라고도 하며, 唐僧 佛陀多羅가 번역한 大乘經典 중의 하나로 승려들의 교과 과목으로 채택될 만큼 불교 수행에 중요한 경전이다.

동국대도서관과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卷末에 '康熙二十年辛酉臘月平安道寧邊妙香山普賢寺開板'의 刊記가 있다. 형태적 특징은 邊欄은 四周單邊이고, 半郭의 크기는 24.4×20cm의 有界이며, 한 면은 9行 16字이다. 版心部分은 上下大黑口에 魚尾는 上下內向混入花紋花紋이다.

3.1.4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1682)

唐 般刺蜜帝가 번역하고 宋 戒環이 해설한 책이다. 모두 10卷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흔히 '大佛頂首楞嚴經', '首楞嚴經', '楞嚴經'으로도 일컬어진다.

규장각, 동국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卷末에 '康熙二十一年壬戌六月平安道寧邊妙香山普賢寺開板'의 刊記가 있어 肅宗 8年(1682)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형태적 특징은 邊欄은 四周單邊에 半郭의 크기는 25.7×17.0cm의 無界이며, 한 면은 8行 20字이다.

3.1.5 「梵網經盧舍那佛說心地法門品菩薩戒本」(1683)

「梵網菩薩戒經」, 「菩薩戒本」이라고도 하며 「梵網經」 중 第十菩薩心地戒品

을 하나로 분리하여 經을 이룬 것이다.

동국대도서관에 소장¹⁷⁾되어 있으며, 卷末에 ‘歲舍癸亥八月日妙香山華藏庵入梓移移普賢寺’의 刊記가 기록되어 華藏庵에서 板刻하여 經板은 보현사로 옮겼다. 형태적 특징은 邊欄은 四周單邊에 半郭의 크기는 22.3×16.5cm의 無界이며, 한 면은 11行 20字에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이다.

3.1.6 『妙法蓮華經』(1691)

『法華經』은 한국 불교의 근본경전으로 『華嚴經』과 더불어 한국불교 사상의 확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경전이다. 본 판본의 卷末에는 ‘康熙三十年辛未六月妙香山普賢寺開板’의 刊記가 있다.

형태적 특징은 邊欄은 四周單邊에 有界이며, 한 면은 8行 13字이다. 版心部分은 上下大黑口에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이다.

3.1.7 『佛說天地八陽神呪經』(1731년경)

三藏法師(唐) 義淨이 漢譯한 것에 한글 음역을 달아 간행한 것으로 줄여서 ‘八陽經’이라고도 한다. 고려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卷末에 ‘關西寧邊妙香山普賢寺鑰’이라 기록되어 있어 정확한 刊年은 불명확하나 跋文에 의해 英祖 7年(1731) 무렵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형태적 특징은 邊欄은 四周單邊에 半郭의 크기는 20.5×17.2cm의 無界이며, 한 면은 10行 20字이다. 版心部分의 魚尾는 上下內向花紋魚尾이다.

17) 여러 목록에서 ‘癸亥年’은 1743년으로 보고 있으나 刻手나 施主名을 다른 普賢寺版과 비교해 본 결과 1683년으로 확인되었다.

3.1.8 「佛說大目連經」(1735)

줄여서 ‘目連經’이라고 하며 석가모니의 十代弟子 중 한 명인 目蓮尊者의 지옥 순례기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卷末에 ‘雍正十三年乙卯四月平安道妙香山普賢寺開板’의 刊記에 의해 英祖 11年(1735)에 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형태적 특징은 邊欄은 四周單邊에 半郭의 크기는 20.0×11.4cm의 無界이며, 한 면은 7行 17字이다. 版心部分의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이다.

3.2 宗義部

3.2.1 「緇門警訓」

「緇門警訓」은 高僧 大德의 名文을 모은 上卷과 승려들이 공부하는데 교훈으로 삼을 만한 역대 高僧들의 글을 모아 엮은 下卷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普賢寺版으로는 1549年版과 1682年版이 전해진다.

3.2.1.1 1549年版

동국대도서관 소장(卷下)으로, 卷末에 ‘嘉靖二十八年己酉四月晦日妙香山普賢寺留板’의 刊記가 있어 明宗 4年(1549)에 간행되었다. 형태적 특징은 邊欄은 上下雙邊에 半郭의 크기는 15.8×11.2cm의 有界이며, 한 면은 11行 20字이다. 版心部分의 魚尾는 上下向黑魚尾이며, 版心題는 ‘緇訓’이다.

3.2.1.2 1682年版

고려대도서관에 소장(卷下)으로, 卷末에 ‘康熙二十一年平安道寧邊妙香山普

賢寺開板'의 刊記가 있어 肅宗 8年(1682)에 간행되었다.

형태적 특징은 邊欄은 四周單邊에 半郭의 크기는 19.3×14.3cm의 有界이며, 한 면은 11行 20字, 版心題는 '緇訓'이다.

3.2.2 「發心修行章」(1566)

元曉가 지은 「發心修行章」은 불교 修道人의 결심과 가져야 할 바른 태도를 가르치는 불교입문서이다. 동국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卷末에는 '嘉靖四十五年丙寅九月妙香山普賢寺開板'의 刊記가 있다.

형태적 특징은 邊欄은 四周單邊에 半郭의 크기는 16.3×11.2cm의 無界이며, 한 면은 8行 16字이다. 版心部分은 上下黑口에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이다.

3.2.3 「禪家龜鑑諺解」(1569)

西山大師 休靜이 여러 경전과 역대 祖師들의 語錄 가운데 禪宗과 教宗의 중요한 문구를 뽑아 수록한 불교수행의 기본 지침서가 되는 경전으로, 당시 불교 개혁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본 판본은 宣祖 2年(1569)에 간행된 것으로 「禪家龜鑑」의 언해본으로는 초간본이다. 규장각, 계명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卷末에 '隆慶三年己巳妙香山普賢寺開刊'의 刊記와 40여명의 施主秩이 있다. 형태적 특징은 邊欄은 四周雙邊에 半郭의 크기는 18.1×12.7cm의 有界이며, 한 면은 9行 17字이다. 版心部分의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로 되어 있으며 版心題는 '禪家龜鑑'이다.

3.2.4 「禪家龜鑑」

3.2.4.1 1612年版

「禪家龜鑑」의 보현사판은 1612年版과 1731年版的 2종이다.

동국대도서관 소장으로, 卷末에 ‘萬曆四十年壬子妙香山內院開板移鎮于普賢寺’의 刊記가 있으며, 이로 인해 內院庵에서 刊각한 經板을 보현사로 옮겨왔음을 알 수 있다. 형태적 특징은 邊欄은 四周雙邊에 半郭의 크기는 18.9×13.7cm의 無界이며, 한 면은 8行 16字이다. 版心部分의 魚尾는 上下內向3葉花紋魚尾이며, 版心題는 ‘龜鑑’이다.

3.2.4.2 1731年版

동국대도서관 소장으로, 卷末에 ‘雍正九年辛亥五月日留刊于香山普賢寺’의 刊記가 있어 英祖 7年(1731)에 刊각하여 經板은 보현사로 옮겨온 것이다.

형태적 특징은 邊欄은 四周單邊에 半郭의 크기는 18.3×13.6cm의 無界이며, 한 면은 8行 16字이다. 版心部分의 魚尾는 上下內向4葉花紋魚尾이며, 版心題는 ‘龜鑑’이다. 1612年版과 비교해 同 계통 판본을 翻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2.5 「大慧普覺禪師書」(1573)

南宋의 大禪師인 大慧普覺禪師의 불교서한집으로 參學慧然과 淨智居士의 문답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려대도서관 소장으로, 卷末의 刊記에는 ‘萬曆元年癸酉季夏日妙香山普潤菴開板普賢寺開傳’라 기록되어 宣祖 6年(1573)에 普潤菴에서 刊각하여 經板은 보현사로 옮겨온 것이다.

형태적 특징은 邊欄은 四周單邊에 半郭의 크기는 17.9×12.6cm의 無界이며, 한 면은 10行 18字이다. 版心部分은 上下白口, 上下內向黑魚尾이다.

3.2.6 「高峰和尚禪要」

宋末元初의 僧 高峰原妙의 語錄에서 발췌하여 구성한 책으로, 한국 불교에 많은 영향을 미친 禪書이다. 보현사판은 1573年版과 1731年版의 2종이다.

3.2.6.1 1573年版

고려대도서관 소장으로 卷末에 ‘萬曆元年癸酉孟秋日妙香山普潤庵開板普賢寺留傳’의 刊記가 있어 宣祖 6年(1573)에 普潤菴에서 만든 經板을 보현사로 옮겨왔으며, 같은 해 간행된 「大慧普覺禪師書」의 기록과 동일하다.

형태적 특징은 邊欄은 四周單邊에 半郭의 크기는 13.6×12.7cm의 有界이며, 한 면은 8行 18字이다. 版心部分의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이다.

3.2.6.2 1731年版

서울대도서관과 이화여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卷末에 ‘雍正九年辛亥五月日開刊于妙香山普賢寺’의 기록에 의해 英祖 7年(1731)에 관각하여 經板은 보현사로 옮겨온 것이다.

형태적 특징은 邊欄은 四周單邊에 半郭의 크기는 17.3×12.5cm의 有界이며, 한 면은 8行 18字이다. 版心部分의 魚尾는 上下內向2葉花紋魚尾이다.

3.2.7 「禪宗永嘉集」(1573)

唐 玄覺이 法文을 撰述하고 宋 行靖이 註를 달아 해석한 경전이다. ‘永嘉’라는 말은 玄覺大師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가 永嘉人이기 때문이다.

卷末에 ‘萬曆元年癸酉二月日平安道寧邊地妙香山普賢寺開板’의 刊記가 있으며 30여명의 施主秩과 刻手 등이 기록되어 있다. 형태적 특징은 邊欄은 四周單

邊에 半郭의 크기는 19.5×14.0cm의 無界이며, 한 면은 11行 19字이다. 版心部分의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이다.

3.2.8 「看話決疑論」(1578년경)

知訥(1158-1210)이 禪修行法 중 하나인 話頭를 들고 수행하는 참선법인 看話禪의 우수성을 밝힌 책이다. 고려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卷末에는 ‘妙香山東幽洞般若菴開板移傳普賢寺’라 기록되어 般若菴에서 판각하여 經板은 보현사에 보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확한 간행 시기는 불확실하나 ‘萬曆次歲戊寅(1578)’…라고 기록된 跋文에 의해 1578년경에 간행되었다.

형태적 특징은 邊欄은 四周單邊에 半郭의 크기는 16.8×11.8cm의 無界이며, 한 면은 10行 20字이다. 版心部分의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이다.

3.2.9 「禪源諸詮集都序」

중국 華嚴宗의 第5祖인 宗密이 禪教一致를 주장하기 위해 지은 책으로, 普賢寺版은 1612年版, 1680年版, 1740年版的 3종이다.

3.2.9.1 1612年版

고려대도서관 소장으로, 卷末에 ‘萬曆四十年壬子仲秋香山內院菴開板留普賢寺’의 刊記가 있어 1612년에 內院菴에서 판각하여 經板은 보현사에 보관하였다. 형태적 특징은 邊欄은 四周單邊에 半郭의 크기는 19.8×13.5cm의 無界이며, 한 면은 9行 19字이다. 版心部分은 上下白口, 上下內向花紋魚尾이다.

3.2.9.2 1680年版

동국대도서관 소장으로, 卷末에 ‘康熙十九年庚申五月日妙香山普賢寺開刊’의 刊記가 기록되어 肅宗 6年(1680)에 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형태적 특징은 邊欄은 四周雙邊에 半郭의 크기는 18.7×13.8cm의 無界이며, 한 면은 9行 19字이다. 版心部分의 魚尾는 上下內向2葉花紋魚尾이다.

3.2.9.3 1740年版

동국대도서관 소장으로, 卷末에 1737년에 淸月國禪가 쓴 跋文과 ‘乾隆五年庚申三月日平安道寧邊府妙香山普賢寺留鎮’라는 刊記가 있어 英祖 16年(1740)에 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형태적 특징은 邊欄은 四周單邊에 半郭의 크기는 22.5×17.1cm의 有界이며, 한 면은 10行 20字이다. 版心部分의 魚尾는 上下內向1葉花紋魚尾이다.

3.2.10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중국 華嚴宗의 第5祖인 宗密이 지은 『法集別行錄』을 간략하게 하여 知訥이 高麗熙宗 5年(1209)에 저술한 참수행의 길을 제시한 책으로, 佛者들의 필독서로 널리 유통되었다. 普賢寺版은 1612年版, 1680年版的 2종이다.

3.2.10.1 1612年版

山氣文庫 소장¹⁸⁾으로, ‘萬曆四十年壬子妙香山內院開板移鎮于普賢寺’의 刊記가 있다. 형태적 특징은 邊欄은 四周雙邊에 半郭의 크기는 20.2×13.8cm의 無

18) 國學資料保存會, 『國典籍綜合目錄(第1輯) : 山氣文庫目錄-李謙魯藏-』(서울: 國學資料保存會, 1974), 133.

界이며, 한 면은 9行 20字이다. 版心部分의 魚尾는 上下內向2葉花紋魚尾이다.

3.2.10.2 1680年版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으로, 卷末에 ‘康熙十九年庚申五月日妙香山普賢寺開刊’의 刊記가 있어 肅宗 6年(1680)에 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형태적 특징은 邊欄은 四周單邊에 半郭의 크기는 17.9×13.8cm의 無界이며, 한 면은 9行 19字이다. 版心部分의 魚尾는 上下內向混入花紋魚尾이다.

3.2.11 『景德傳燈錄』(1682)

宋 高僧 道源이 景德 1年(1004)에 지은 것으로, 過去七佛에서 인도와 중국의 역대 祖師 등의 傳記를 수록한 것이다.

동국대도서관 소장으로, 卷末에 ‘康熙二十一年壬戌七月日平安道寧邊普賢寺開版’의 刊記가 있다. 형태적 특징은 邊欄은 四周單邊에 半郭의 크기는 19.8×15.3cm의 無界이며, 한 면은 12行 20字이다. 版心部分의 魚尾는 대부분 無魚尾이지만 간혹 上下向黑魚尾도 있다. 版心題는 ‘傳燈錄’이다.

3.2.12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1682)

唐 宗密이 지은 『金剛般若經疏論纂要』를 宋 慧定이 쉽게 설명한 책이다. 동국대도서관 소장으로, 卷末에 ‘壬戌李冬香山普賢寺入梓’의 刊記가 있다.¹⁹⁾

형태적 특징은 邊欄은 四周單邊에 半郭의 크기는 23.5×14.9cm의 無界이며, 한 면은 10行 20字이다. 版心部分의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이며, 版心題는 ‘助顯錄’이다.

19) 동국대 목록에서는 刊記의 干支인 ‘壬戌’이 1862년으로 되어 있으나 기타 普賢寺版과 施主나 刻手名을 비교해보면 1862년이 아니라 1682년으로 확인되었다.

3.2.13 『大乘起信論疏』(1682)

馬鳴菩薩이 저술하고 眞諦三藏이 번역한 大乘佛敎의 대표논서인 『大乘起信論』을 元曉가 주석한 것으로, 한국불교사상 전개에 있어 중요한 경전이다.

普賢寺版은 卷末에 ‘康熙二十一年壬戌三月平安道寧邊香山普賢開版’의 刊記가 있다. 형태적 특징은 邊欄은 四周單邊에 半郭의 크기는 22.5×21.8cm의 有界이며, 한 면은 10行 18字이다. 版心部分은 上下大黑口에 魚尾는 上下內向2葉花紋魚尾이며 版心題는 ‘起信論’이다.

3.3 禮懺部

3.3.1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1680)

松堂大愚(1676-1763)가 『壽生經』과 『十王經』의 사상을 주내용으로 하여 편찬한 것으로, 오늘날 사찰의 의식서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동국대도서관 소장으로, 卷末에 ‘康熙十九年庚申孟秋日妙香山普賢寺開刊’의 刊記가 기록되어 있다. 형태적 특징은 邊欄은 四周單邊에 半郭의 크기는 22.2×17cm의 有界이며, 한 면은 8行 16字이다. 版心部分은 부분적으로 大黑口가 있으며,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로 되어 있다. 表題는 ‘預修文’이다.

3.3.2 『諸眞言集』(1688)

여러 종류의 眞言을 모아 편성한 것으로, 諺文, 漢文, 梵字의 순으로 병기한 眞言集이다. 서울대도서관, 동국대도서관, 연세대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卷末에 ‘康熙二十七年平安道寧邊妙香山佛影臺開板移鎮于普賢寺’라는 기록이 있어 佛影臺에서 관각하여 普賢寺로 옮겨온 것을 알 수 있다.

형태적 특징은 邊欄은 四周單邊에 半郭의 크기는 19.0×14.4cm의 有界이며,

한 면은 9行 19字이다. 版心部分의 魚尾는 上下內向2葉花紋魚尾이고, 版心題는 ‘眞言集’이다.

3.3.3 「刪補梵音集」

법패가사 등을 수록한 禪家의 梵音儀式集으로 아직까지 사찰의식을 행할 때 참고하고 있으며, 上卷은 普請儀式 등 7종의 의식, 下卷은 宗室位壇法 등 12종의 의식을 수록하였다. 동국대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卷末에 ‘康熙五十二年癸巳四月日始刻于妙香山普賢寺’의 刊記에 의해 肅宗 39年(1713)에 板刻하여 보현사에 보관한 것을 알 수 있다.

형태적 특징은 邊欄은 四周單邊에 半郭의 크기는 23.0×17.8cm의 無界이며, 한 면은 10行 18字이다. 版心部分은 上下大黑口에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이며, 版心題는 ‘梵音集’이다.

3.3.4 「觀世音菩薩靈驗略抄」(1728)

觀世音菩薩의 功德과 神呪인 大悲心陀羅尼의 靈驗함과 경전의 讀誦을 권장한 책으로, ‘畫千手’라고도 일컬어진다. 동국대도서관 소장으로, 卷末에 ‘雍正六年戊申四月日刊寘于香山普賢寺’의 기록이 있다.

형태적 특징은 邊欄은 四周單邊에 半郭의 크기는 22.6×15.4cm의 無界이며, 한 면은 10行 20字이다. 版心部分의 魚尾는 上下內向黑混入2葉花紋魚尾이며, 版心題는 ‘千手’, 表題는 ‘觀音懃持文’이다.

3.3.5 「隨求陀羅尼」(1729)

唐 不空이 번역한 “구하는 바를 얻는다”는 의미의 陀羅尼經으로, 원제목은 ‘佛說金剛頂瑜伽最勝秘密成佛隨求即得神變加持成就陀羅尼經’이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卷末에 ‘雍正七年歲次己酉二月日改刊于妙香山普賢寺留鎮’의 刊記가 있어 英祖 5年(1729)에 板刻하여 經板은 보현사로 옮겼다. 형태적 특징은 邊欄은 四周雙邊에 半郭의 크기는 17×12.4cm의 有界이며, 한 면은 9行 16字이다. 版心部分은 上下大黑口에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이다.

3.3.6 『諸般文』(1733)

『諸般文』은 寺刹禮法 가운데 眞言請文에 관한 儀式을 집대성한 것이다.

동국대도서관, 계명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卷末에 ‘雍正十一年仲春寧邊妙香山普賢寺大莊殿開板’의 刊記에 의해 英祖 9年(1733)에 普賢寺 大莊殿에서 간행한 것을 알 수 있다.

형태적 특징은 邊欄은 四周單邊에 半郭의 크기는 20.8×17.1m의 有界이며, 한 면은 8行 16字이다. 版心部分의 魚尾는 上下內向2葉花紋魚尾이다.

3.3.7 『施食儀文』(1733)

규모가 큰 寺刹에서 四明日에 魂靈을 맞아 祭享을 드리는 내용의 儀式文으로, 원서명은 ‘大刹四明日靈魂施食儀文’이다. 동국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卷末에 ‘雍正十一年仲春寧邊妙香山普賢寺大莊殿開板’의 刊記에 의해 英祖 9年(1733)에 普賢寺 大莊殿에서 간행한 것을 알 수 있다. 형태적 특징은 邊欄은 四周單邊에 半郭의 크기는 22.2×14.7cm의 有界이며, 한 면은 9行 16字이다. 版心部分의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이다.

3.3.8 『三門直指』(1769)

英祖 45年(1769) 승려 捌關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 念佛門, 圓頓門, 徑截門의 三門으로 나누어져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으로, 卷末에 ‘安州隱寂寺開板移鑄香山普賢寺’의 刊記가 있어 安州의 隱寂寺에서 開板하여 經板은 보현사로 옮겨온 것이다.

형태적 특징은 邊欄은 四周雙邊에 半郭의 크기는 20.7×14.6cm의 有界이다. 版心部分의 魚尾는 上下內向2葉花紋魚尾이다.

3.4 文集部

3.4.1 「碧松堂堊老行錄」(1569)

碧松禪師 智嚴(1464-1569)의 詩文集이다. 智嚴의 法號는 堊老이며, 1544년에 普賢寺 極樂殿에서 후학을 양성하였다. 이 책은 碧松·敬聖禪師의 行錄으로 ‘二老行錄,’ ‘兩老行錄’이라고도 한다.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도서관, 계명대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卷末에 ‘隆慶三年己巳妙香山普賢寺開刊’의 刊記와 施主者 명단이 있다.

형태적 특징은 邊欄은 四周雙邊에 半郭의 크기는 18.1×12.5cm의 無界이며, 한 면은 6行 8字이다. 版心部分은 上下黑口에 上下內向黑魚尾이며, 版心題는 碧松과 敬聖을 줄인 ‘碧敬’이다.

3.4.2 「虛白集」

仁祖 때의 승려인 明照大師(1593-1661, 號 虛白堂)의 詩文集이다. 虛白堂은 泗溟堂의 제자로 丁卯胡亂, 丙子胡亂에 의병장으로 활약하였으며, 仁祖 12年(1634)에 碧巖堂 覺性大師와 함께 보현사를 六創하였다.

普賢寺版은 1669年版과 1771年版 2종이다.

3.4.2.1 1669年版

규장각, 동국대도서관, 연세대도서관 등에 소장된 3卷 1冊이다. 1669年 宣城 盧夢脩의 쓴 序文이 있고, 卷末에 ‘康熙八年己酉三月日妙香山普賢寺留鎮’의 刊記가 있어 顯宗 10年(1669)에 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형태적 특징은 邊欄은 四周雙邊에 半郭의 크기는 18.5×14.6cm의 有界이며, 한 면은 9行 18字이다. 版心部分의 魚尾는 上下內向1葉花紋魚尾로 되어 있다.

3.4.2.2 1771年版

규장각 소장으로, 1669年版의 後刷本이다. ‘康熙八年己酉三月日妙香山普賢寺留鎮’의 底本刊記와 ‘乾隆三十六辛卯開刻于日伏留鎮於板殿’의 刊記가 있다. 형태적 특징은 邊欄은 四周雙邊에 半郭의 크기는 20.0×15cm의 有界이며, 한 면은 10行 17字이다. 版心部分의 魚尾는 上下內向花紋魚尾이다.

3.4.3 『雪巖雜著』(1710)

秋鵬(1651-1706)의 시문집으로, 秋鵬의 법호는 雪巖이다. 그는 보현사에서 華嚴을 講論하며 당시 유명한 道安에게 10년간 法을 進수받았다.

3卷 3冊으로 규장각과 동국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肅宗 36年(1710) 妙香山 板殿에서 卷1-2를 開板하고, 4년 후인 肅宗 40年(1714)에 卷3을 開板하였다. 卷2의 末에는 ‘庚寅七月日香山板殿藏板’의 刊記, 卷3의 末에는 英祖 40年(1714)에 法宗이 쓴 跋文이 있다. 형태적 특징은 邊欄은 四周單邊에 半郭의 크기는 21.1×15.4cm의 有界이며, 한 면은 11行 21字이다. 版心部分의 魚尾는 上下內向混入魚尾이며, 版心題는 ‘雪巖著’이다.

3.4.4 「雪巖亂藁」(1712)

雪巖 秋鵬의 詩를 肅宗 38年(1712)에 그의 제자 碧虛 圓照의 주간 하에 간행한 2卷 1冊이다. 규장각 소장으로, 卷末에 ‘康熙五十一年壬辰四月日江原道伊川高達山刊同門七卷刊板合寘于香山普賢寺’의 기록에 의해 江原道 高達山에서 板刻하여 이후 보현사로 經板을 옮겨왔음을 알 수 있다.

형태적 특징은 邊欄은 四周單邊에 半郭의 크기는 20.7×15.2cm의 有界이며, 한 면은 11行 20字이다. 版心部分의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이다.

3.4.5 「月渚堂大師集」(1717)

月渚 道安(1638-1715)의 詩文集으로 肅宗 43年(1717)에 간행된 2卷 2冊이다. 道安의 法號는 月渚이며, 보현사에서 華嚴을 講論하며 명성을 떨쳤다. 규장각, 동국대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전남대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卷末에는 ‘康熙五十六年丁酉七月日刻于內院移普賢寺’의 刊記에 의해 內院에서 판각한 經板을 보현사로 옮겨왔다. 형태적 특징은 邊欄은 四周單邊에 半郭의 크기는 20.5×15.8m의 無界이며, 한 면은 10行 20字이다. 版心部分의 魚尾는 上下內向2葉花紋魚尾이며, 版心題는 ‘月渚集’이다.

3.4.6 「虛靜集」(1732)

法宗(1670-1733)이 지은 2卷 1冊의 시문집이다. 법종의 號는 虛靜이며, 雪岩 秋鵬의 법을 계승하였다. 본 판본은 法宗이 입적하기 1년 전인 1732년에 간행된 것으로, 규장각, 동국대도서관, 연세대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卷末에는 저자의 跋文과 ‘雍正十年壬子五月日香山普賢寺開刊’이라는 刊記가 있어 英祖 8年(1732)에 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형태적 특징은 邊欄은 四周單邊에 半郭의 크기는 24.0×18.2m의 有界이며, 한 면은 10行 20字이다. 版心部分

의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 混入 2葉花紋魚尾이다.

3.4.7 「淸虛堂集」(1794년경)

西山大師로 잘 알려진 淸虛堂 休靜(1520-1604)의 시문집이다. 휴정은 임진왜란의 僧兵將으로 1604년 妙香山 圓寂庵에서 열반하였다.

4卷 2冊으로, 동국대도서관에 後刷本이 소장되어 있다. 앞부분에 國一都大禪師/妙香藏板의 기록이 있으며, 序文의 ‘正宗大王御製西山大師畫像堂銘并序…甲寅(1794)四月八日安于表忠酬忠之祠中…’의 기록으로 1794년경에 간행되었다.

형태적 특징은 邊欄은 四周單邊에 半郭의 크기는 21.2×15.0m의 有界이며, 한 면은 10行 20字이다. 版心部分의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로 되어 있다.

3.5 其他

보현사관의 관본 분류 중 經典部, 宗義部, 禮懺部, 文集部를 제외한 기타 普賢寺版은 2종으로, 「玉樞經」, 「佛祖宗派之圖」이 간행되었다.

3.5.1 「玉樞經」(1733)

원서명은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說玉樞寶經」이며, 악귀를 쫓거나 질병을 없애준다는 내용의 민간무속신앙 경전이자 사찰에 영향을 준 도교 경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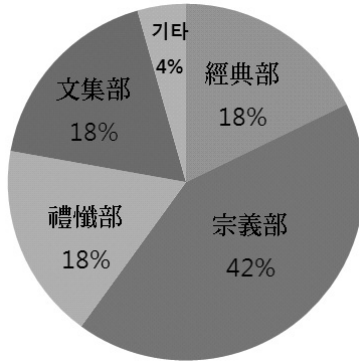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卷末에 ‘雍正十一年癸丑孟夏寧邊妙香山普賢寺開刊’의 刊記에 의해 英祖 9年(1733)에 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형태적 특징은 邊欄은 四周單邊에 半郭의 크기는 20.7×19.0m의 有界이며, 한 면은 9行 17字이다. 版心部分의 魚尾는 上下內向混入花紋魚尾이고, 版心題는 ‘玉樞’이다.

3.5.2 「佛祖宗派之圖」(1688)

인도, 중국과 우리나라의 조선 중기까지 佛敎의 계통을 도표로 그린 1帖 6折 12面으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肅宗 14年(1688)에 간행되었으며, 卷末에 ‘今者 妙香山是淸虛禪師所恒居道場 故又錄載淸虛於及葉信分岐七葉之下 更重刊宗派圖於普賢寺…’라고 하여 ‘淸虛’의 이름을 넣어 普賢寺에서 開刊하였다. 형태적 특징은 邊欄은 上下單邊·左右雙邊이며 全郭 30.2×47cm의 無界이며 版心部分의 魚尾는 없다.

이상 45종의 普賢寺版에 대하여 주제별로 나누어보면 <그림 1>과 같이 經典部 8종(18%), 宗義部 19종(42%), 禮懺部 8종(18%), 文集部 8종(18%), 기타 2종(4%)로 나타나 宗義部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였다.



<그림 1> 普賢寺版의 주제별 분포(%)

세부적으로 보면 <표 2>와 같이 經典部로는 經集類가 4종이며, 그 중 『楞嚴經』, 『佛說天地八陽神呪經』의 密敎經典이 2종, 『妙法蓮華經』, 『金剛般若波羅密經』이 각 1종이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宗義部 19종은 모두 禪宗類이며, 禪宗類 중 2회

이상 간행된 것으로는 禪家龜鑑類가 3회, 『緇門警訓』 2회, 『高峰和尚禪要』 2회, 『禪源諸詮集都序』 3회, 『法集別行錄切要并私記』가 2회 간행되었다.

禮懺部는 모두 8종이며,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1680), 『諸眞言集』(1688), 『刪補梵音集』(1713), 『諸般文』(1733), 『施食儀文』(1733), 『三門直指』(1769) 등의 儀式集 6종과 『觀世音菩薩靈驗略抄』(1728), 『隨求陀羅尼』(1729)의 眞言·陀羅尼經類 2종이다.

文集部는 모두 보현사 관련 역대 승려의 시문집으로, 『碧松堂堊老行錄』(1569), 『虛白集』(1669·1771), 『雪巖雜著』(1710), 『雪巖亂藁』(1712), 『月渚堂大師集』(1717), 『虛靜集』(1732), 『淸虛堂集』(1794년경)이다. 특히 『虛白集』은 1669년, 1771년 2회 간행되었다. 기타 宗派法脈圖인 『佛祖宗派之圖』(1688)와 『玉樞經』(1733)이 간행되었다.

<표 2> 普賢私版의 주제별 세부 분포

分類(種)	細部分類(種)	經典名(刊行時期)
經典部 (8)	經集類(4)	『佛說大報父母恩重經診解』(16世紀), 『圓覺經』(1681), 『梵網經 盧舍那佛說心地法門品菩薩戒本』(1683), 『佛說大目連經』(1735)
	密教經典(2)	『楞嚴經』(1682), 『佛說天地八陽神呪經』(1731년경)
	法華經(1)	『妙法蓮華經』(1691)
	般若經(1)	『金剛經』(1680)
宗義部 (19)	禪宗類(19)	『緇門警訓』(1549), 『發心修行章』(1566), 『禪家龜鑑診解』(1569), 『大慧普覺禪師書』(1573), 『高峰和尚禪要』(1573), 『禪宗永嘉集』(1573), 『看話決疑論』(1578년경), 『禪家龜鑑』(1612), 『禪源諸詮集都序』(1612),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1612), 『禪源諸詮集都序』(1680),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1680), 『景德傳燈錄』(1682),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1682), 『大乘起信論疏』(1682), 『緇門警訓』(1682), 『禪家龜鑑』(1731), 『高峰和尚禪要』(1731), 『禪源諸詮集都序』(1740)
禮懺部 (8)	儀式集(6)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1680), 『諸眞言集』(1688), 『刪補梵音集』(1713), 『諸般文』(1733), 『施食儀文』(1733), 『三門直指』(1769)
	眞言·陀羅尼經(2)	『觀世音菩薩靈驗略抄』(1728), 『隨求陀羅尼』(1729)
文集部 (8)		『碧松堂堊老行錄』(1569), 『虛白集』(1669), 『虛白集』(1771), 『雪巖雜著』(1710), 『雪巖亂藁』(1712), 『月渚堂大師集』(1717), 『虛靜集』(1732), 『淸虛堂集』(1794년경)
기타(2)		『佛祖宗派之圖』(1688), 『玉樞經』(1733)

4. 時期別 分析

45종의 普賢寺版을 시기별로 보면 간행 시기는 모두 16-18세기이며, 기타 시기의 판본은 확인되지 않았다. 시기별 간행 양상은 <표 3>과 같이 16세기 9종(20%), 17세기 18종(40%), 18세기 18종(40%)으로 나타났으며, 16세기의 1551-1575년, 17세기의 1676-1700년, 18세기의 1726-1750년에 간행이 집중되어 전체의 약 67%를 차지한다.

<표 3> 普賢寺版의 時期別 刊行

世紀	種(%)	細部時期	種(%)
16세기	9종(20%)	1501-1525	0
		1526-1550	1종(2.2)
		1551-1575	6종(13.3)
		1576-1600	1종(2.2)
		기타	1종(2.2)
17세기	18종(40%)	1601-1625	3종(6.7)
		1626-1650	0
		1651-1675	1종(2.2)
		1676-1700	14종(31.1)
18세기	18종(40%)	1701-1725	4종(8.9)
		1726-1750	10종(22.2)
		1751-1775	1종(2.2)
		1776-1800	3종(6.7)

시기별 간행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6세기에는 9종의 판본이 확인되었는데, 간행 시기는 1549년에서 1578년까지이다. 16세기 판본으로는 『緇門警訓』(1549), 『發心修行章』(1566), 『禪家龜鑑諺解』(1569), 『碧松堂堊老行錄』(1569), 『大慧普覺禪師書』(1573), 『高峰和尚禪要』(1573), 『禪宗永嘉集』(1573), 『看話決疑論』(1578년경), 기타 刊記未詳의 『父母恩重經諺解』가 있다.

17세기에는 18종의 판본이 확인되며, 『禪家龜鑑』(1612), 『禪源諸詮集都序』

(1612), 『虛白集』(1669),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1612),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1680), 『金剛經』(1680), 『禪源諸詮集都序』(1680),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1680), 『圓覺經』(1681), 『景德傳燈錄』(1682), 『楞嚴經』(1682),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1682), 『大乘起信論疏』(1682), 『緇門警訓』(1682), 『梵網經盧舍那佛說心地法門品菩薩戒本』(1683), 『諸眞言集』(1688), 『佛祖宗派之圖』(1688), 『妙法蓮華經』(1691) 등의 大乘經典과 禪宗類 관련 경전이 다수 간행되었다.

17세기 판본은 시기적으로 1680년대의 판본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체 보현사 판본의 31%를 차지한다.

18세기에는 18종의 판본이 확인되며, 이 시기에는 雪巖 秋鵬(1651-1756), 虛靜 法宗(1670-1733), 明照 虛白堂(1593-1661), 西山 淸虛堂(1520-1604), 月渚堂 道安(1638-1715) 등의 詩文集의 간행이 눈에 띈다. 또한 『刪補梵音集』(1713), 『觀世音菩薩靈驗略抄』(1728), 『隨求陀羅尼』(1729), 『佛說天地八陽神呪經』(1731년경), 『諸般文』(1733), 『施食儀文』(1733), 『三門直指』(1769) 등의 禮懺類 관련 경전이 많이 간행되었다.

<표 4> 世紀別 經典 刊行

世紀(種)	經名
16(9)	『父母恩重經諺解』(16世紀), 『緇門警訓』(1549), 『發心修行章』(1566), 『禪家龜鑑諺解』(1569), 『碧松堂堊老行錄』(1569), 『大慧普覺禪師書』(1573), 『高峰和尚禪要』(1573), 『禪宗永嘉集』(1573), 『看話決疑論』(1578년경)
17(18)	『禪家龜鑑』(1612), 『禪源諸詮集都序』(1612),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1612), 『虛白集』(1669),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1680), 『金剛經』(1680), 『禪源諸詮集都序』(1680),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1680), 『圓覺經』(1681), 『景德傳燈錄』(1682), 『楞嚴經』(1682),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1682), 『大乘起信論疏』(1682), 『緇門警訓』(1682), 『梵網經盧舍那佛說心地法門品菩薩戒本』(1683), 『諸眞言集』(1688), 『佛祖宗派之圖』(1688), 『妙法蓮華經』(1691)
18(18)	『雪巖雜著』(1710), 『雪巖亂藁』(1712), 『刪補梵音集』(1713), 『月渚堂大師集』(1717), 『觀世音菩薩靈驗略抄』(1728), 『隨求陀羅尼』(1729), 『佛說天地八陽神呪經』(1731년경), 『禪家龜鑑』(1731), 『高峰和尚禪要』(1731), 『虛靜集』(1732), 『諸般文』(1733), 『施食儀文』(1733), 『玉樞經』(1733), 『佛說大目連經』(1735), 『禪源諸詮集都序』(1740), 『三門直指』(1769), 『虛白集』(1771), 『淸虛堂集』(1794년경)

현전 판본 중 보현사에서 開板하거나 開刊한 기록이 있는 판본은 21종으로, 보현사 본사에서 경전 간행 사업은 크게 3기에 걸쳐 이루어졌다.

第1期는 1560년대 이후로 『發心修行章』(1566), 『禪家龜鑑諺解』(1569), 『碧松堂堊老行錄』(1569), 『禪宗永嘉集』(1573) 등이 간행되었다.

第2期는 1680년대 이후이다. 이 시기는 『金剛經』, 『法華經』, 『圓覺經』, 『楞嚴經』 등 주요 大乘經典과 禪宗 관련서를 대대적으로 간행하였다.

간행된 경전으로는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1680), 『金剛經』(1680), 『禪源諸詮集都序』(1680),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1680), 『圓覺經』(1681), 『景德傳燈錄』(1682), 『楞嚴經』(1682),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1682), 『大乘起信論疏』(1682), 『緇門警訓』(1682), 『佛祖宗派之圖』(1688), 『妙法蓮華經』(1691) 등이고, 다수 판본의 化主로는 護衛總攝을 지낸 元學과 智雲이 참여하였다.

第3期는 1730년대이며, 『虛靜集』(1732), 『玉樞經』(1733), 『諸般文』(1733), 『施食儀文』(1733), 『佛說大目連經』(1735) 등이 간행되었다.

<표 5> 普賢寺 本寺의 開板·開刊本

區分	時期	經名
1期	1560年代	『發心修行章』(1566), 『禪家龜鑑諺解』(1569), 『碧松堂堊老行錄』(1569), 『禪宗永嘉集』(1573)
2期	1680年代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1680), 『金剛經』(1680), 『禪源諸詮集都序』(1680),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1680), 『圓覺經』(1681), 『景德傳燈錄』(1682), 『楞嚴經』(1682),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1682), 『大乘起信論疏』(1682), 『緇門警訓』(1682), 『佛祖宗派之圖』(1688), 『妙法蓮華經』(1691)
3期	1730年代	『虛靜集』(1732), 『玉樞經』(1733), 『諸般文』(1733), 『施食儀文』(1733), 『佛說大目連經』(1735)

普賢寺版 중에는 다른 곳에서 板刻하여 經板은 보현사로 옮겨 보관한 기록이 있는 판본이 12종 확인되었다.²⁰⁾

20) 이외에도 經板을 옮겨 보현사에 보관한 기록이 있는 판본이 있으나 확실한 기록이 있는 판본은 12종이다.

주요 판각처로는 普潤庵, 華藏庵 佛影臺 등의 山內 末寺뿐만 아니라 강원도 高達山에서 碧虛圓照(1658~1735)가 간행을 주관한 『雪巖亂藁』(1712)가 妙香山 普賢寺에 옮겨와 봉안하였다.

<표 6>과 같이 보현사의 말사인 普潤菴은 1573년에 『大慧普覺禪師書』(1573), 『高峰和尚禪要』(1573)의 2종을 옮겨왔고, 內院庵에서는 1612년에 『禪家龜鑑』(1612), 『禪源諸詮集都序』(1612),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1612)를 판각하여 보현사로 옮겨와 보관하였다.

<표 6> 普賢寺로 옮긴 經板의 板刻處

板刻處	經名
普潤菴(2)	『大慧普覺禪師書』(1573), 『高峰和尚禪要』(1573)
般若菴(1)	『看話決疑論』(1578년경)
華藏庵(2)	『父母恩重經諺解』(임란직전), 『梵網經』(1683)
內院庵(4)	『禪家龜鑑』(1612), 『禪源諸詮集都序』(1612),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1612), 『月渚堂大師集』(1717)
佛影臺(1)	『諸真言集』(1688)
江原道 高達山(1)	『雪巖亂藁』(1712)
隱寂寺(1)	『三門直指』(1769)

기타 같은 서명의 책을 2회 이상 간행한 판본은 6종이 확인되며, 『緇門警訓』(1549·1682) 2회, 『禪家龜鑑』(1612·1731) 2회, 『高峰和尚禪要』(1573·1731) 2회, 『禪源諸詮集都序』(1612·1680·1740) 3회,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1612·1680), 『虛白集』(1669·1771)이 2회 간행되었다.

5. 活動 刻手

보현사판에 수록된 각수는 주로 刻手 또는 刻手名, 刻手秩, 刻手記, 刻工으로 표기되었다.²¹⁾ 주요 각수를 보면 16세기의 활동 각수로 ‘法心’은 1569년에 普賢

寺 開板本 『碧松堂菴老行錄』·『禪家龜鑑諺解』의 판각을 담당하였다.

17세기 판본 중 1612년에 보현사의 末寺인 內院庵에서 開板하여 보현사로 옮긴 기록이 있는 판본의 각수로는 李信會, 申極直(申克直), 一玄(日玄), 白忠京(白忠敬), 天玉, 眞祥 등이 활동하였다.²²⁾ 또한 조선시대 판각사업 중 가장 많은 경전을 판각했던 1680년대 보현사 개판본의 刻手로는 <표 7>과 같이 敬訓, 方六, 朴應河, 白英, 尹丁日, 玄益, 惠圓, 申孝吉 등이 주로 활동하였다.

<표 7> 1680년대 普賢寺開板本의 주요 刻手

經典名	刻手名
禪源諸詮集都序(1680)	金聖澄, 李智玄, 李惠特, 金石岩, 韓億岩面, 金獐, 崔汝軒, 金生立, 元默, 金三哲, 白英, 申孝吉, 尹丁日, 日清, 界弘, 朴萬香, 双彦, 京善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1680)	李智玄, 李惠特, 元默, 世元, 白英, 申孝吉
金剛經(1680)	李水明, 金生立, 申孝吉, 尹丁日
楞嚴經(1682)	朴應河, 尹廷日, 智翠(卷1末), 宝行, 敬訓, 天屹, 道信, 金武石, 三彦, 靈悟, 慧遠, 玄益(卷4末)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1682)	朴應河, 敬訓, 玄益, 守軒, 方六, 裕楚
景德傳燈錄(1682)	金聖澄, 韓億岩面, 金獐, 崔汝軒, 方禮云, 瑞元, 金三哲, 白英, 戒弘, 朴萬香, 文禮, 僅英, 性彦, 敬仙, 朴永吉, 張松山, 双彦, 尹丁日, 金僅信, 韓普熙, 尙熙, 梁大順, 信戒, 白賢, 京畿道 朴應河, 金武石, 戒混 / 江原道 惠遠, 靈贊, 靈悟, 敬訓, 信哲, 三彦, 宝行 / 慶尙道 釋還, 双運 / 全羅道 敬珠, 廣津 / 黃海道 天屹, 道信, 灵元, 法律, 灵印, 金儀善, 善洽, 坦佑, 元甘, 元惠, 守軒, 智翠, 方六, 金永
大乘起信論疏(1682)	惠元, 元惠
佛祖宗派之圖(1688)	性學, 藏六
妙法蓮華經(1691)	方六

21) 일부 鈔梓=『碧松堂菴老行錄』(1569), 『禪家龜鑑諺解』(1569), 雕字=『高峰和尚禪要』(1573), 刊工=『虛靜集』(1732), 刻手錄(『三門直指』(1769)로도 표기됨.

22) 『禪家龜鑑』 / 廣淳, 李信會, 吳興周, 退仁, 申極直, 白忠京, 義一, 一玄, 天玉, 眞祥
『禪源諸詮集都序』 / 李信會, 惠仁, 申克直, 白忠京, 一玄, 眞祥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 白忠敬, 義日, 日玄, 天玉

이 시기의 판본 중 특히 1682년에 판각한 『景德傳燈錄』의 卷末에는 ‘各道施主 刻手稾’의 기록이 있어 당시 지역별 각수에 대해 알 수 있다. 여기에 수록된 각수는 24명의 사찰 각수뿐만 아니라 各道에서 적게는 2명, 많게는 14명의 각수가 참여하여 판각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수의 수는 경상도·전라도가 2명, 황해도 14명, 강원도 7명으로 지리적 여건에 따라 인원의 차이가 있다.

<표 8>은 『景德傳燈錄』에 수록된 刻手의 기타 보현사판의 판각에 대해 나타난 것이다. 표와 같이 『景德傳燈錄』에 수록된 지역 각수는 『景德傳燈錄』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의 보현사판의 다른 경전에 활동한 것을 볼 수 있다.

경기도 각수인 朴應河의 경우 1682에 간행된 『景德傳燈錄』, 『楞嚴經』,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에 각수로 참여하였고, 金武石의 경우 1682년에 간행된 『景德傳燈錄』, 『楞嚴經』에 각수로 참여하였다.

강원도 각수인 惠元은 ‘惠遠’이라고도 표기되어 있으며, 1682년에 간행된 『景德傳燈錄』, 『大乘起信論疏』과 1683년에 간행된 『梵網經』에 참여하였다.

敬訓의 경우 1682년에 간행된 『景德傳燈錄』, 『楞嚴經』,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三彥과 宝行은 1682년에 간행된 『景德傳燈錄』, 『楞嚴經』에 각수로 참여하였다.

지리적으로 기타 지역보다 인접하여 가장 많은 각수가 보이는 황해도는 14명의 각수가 참여하였다. 특히 天屹, 道信, 智翠는 1682년에 간행된 『景德傳燈錄』, 『楞嚴經』의 각수로 참여하였고, 元惠는 1682년에 간행된 『景德傳燈錄』, 『大乘起信論疏』의 각수로 참여하였으며, 守軒은 1682년에 간행된 『景德傳燈錄』,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의 각수로 참여하였다. 특히 方六의 경우 1682년에 간행된 『景德傳燈錄』,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과 1691년에 간행된 『妙法蓮華經』의 각수로 참여하여 오랜 기간 동안 보현사에서 활동한 것으로 짐작된다.

기타 경상도, 전라도에서는 각 2명씩 4명의 각수가 1682년 『景德傳燈錄』에 각수로 참여하였다.

<표 8> 「景德傳燈錄」에 수록된 各道 刻手名과 板刻經名

地域	刻手名	板刻經名(時期)
京畿道	朴應河	景德傳燈錄(1682), 楞嚴經(1682),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1682)
	金武石	楞嚴經(1682), 景德傳燈錄(1682)
	戒湜	景德傳燈錄(1682)
江原道	惠元(惠遠)	大乘起信論疏(1682), 景德傳燈錄(1682), 梵網經(1683)
	靈贊	景德傳燈錄(1682)
	靈悟(靈悟)	景德傳燈錄(1682), 楞嚴經(1682)
	敬訓	楞嚴經(1682),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1682), 景德傳燈錄(1682)
	信哲	景德傳燈錄(1682)
	三彥	楞嚴經(1682), 景德傳燈錄(1682)
	寶行	楞嚴經(1682), 景德傳燈錄(1682)
慶尙道	釋遠	景德傳燈錄(1682)
	雙運	景德傳燈錄(1682)
全羅道	敬珠	景德傳燈錄(1682)
	廣津	景德傳燈錄(1682)
黃海道	天屹	楞嚴經(1682), 景德傳燈錄(1682)
	道信	楞嚴經(1682), 景德傳燈錄(1682)
	靈元	景德傳燈錄(1682)
	法律	景德傳燈錄(1682)
	靈印	景德傳燈錄(1682)
	金儀善	景德傳燈錄(1682)
	善洽	景德傳燈錄(1682)
	坦佑	景德傳燈錄(1682)
	元甘	景德傳燈錄(1682)
	元惠	景德傳燈錄(1682), 大乘起信論疏(1682)
	守軒	景德傳燈錄(1682),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1682)
	智翠	楞嚴經(1682), 景德傳燈錄(1682)
	方六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1682), 景德傳燈錄(1682), 妙法蓮華經(1691)
	金永	景德傳燈錄(1682)

18세기에는 ‘別訓’이라는 각수가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別訓’은 『月渚堂大師集』(1717)부터 『禪源諸詮集都序』(1740)까지 7종의 판본에 각수로 기록되어 있어 최소 1717년부터 1740년대까지 20여년 이상을 각수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1732년 普賢寺開刊本人 「虛靜集」에는 ‘刊工 通政大夫前僧將’이라 기록되어 그는 僧將 출신의 通政大夫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18세기 활동 주요 刻手

經典名	刻手名
雪巖雜著(1710)	海彬, 處澄, 法禪 刻
刪補梵音集(1713)	玄益, 月印, 良彥, 休豈, 勝俊, 明哲, 道欽, 金奉先, 朴得英, 女得玉
月渚堂大師集(1717)	別訓, 淨益
觀世音菩薩靈驗略抄(1728)	通政 別訓
隨求陀羅尼(1729)	別訓, 瑞明
禪家龜鑑(1731)	別訓
高峰和尚禪要(1731)	別訓
虛靜集(1732)	通政大夫前僧將 別訓
玉樞經(1733)	比丘 瑞明
佛說大目蓮經(1735)	淨慧
禪源諸詮集都序(1740)	通政 別訓, 漢俊, 韓興奎, 金朔夫里
三門直指(1769)	釋處心, 釋心快, 釋再信, 通政 巨說, 釋文贊, 通政善祐, 釋定正, 釋等伯, 釋普瓊, 妙哲, 普說, 學淳, 有一, 文益, 雪淳, 楚澗, 淨雲

기타 보현사판의 각수와 판각한 경전명은 <표 10>과 같다(각수명 표기는 이름만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名, 姓으로 함).

<표 10> 刻手名(가나다순) / 板刻經典

刻手名	板刻 經典	刻手名	板刻 經典
敬敏	梵網經(1683)	法禪	雪巖雜著(1710)
		法心	碧松堂坐老行錄(1569), 禪家龜鑑診解(1569)
京善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1680)	別訓	月渚堂大師集(1717), 觀世音菩薩靈驗略抄(1728), 隨求陀羅尼(1729), 禪家龜鑑(1731), 高峰和尚禪要(1731), 虛靜集(1732), 禪源諸詮集都序(1740)
敬仙	景德傳燈錄(1682)	普說	三門直指(1769)
敬珠	景德傳燈錄(1682)	普熙, 韓	景德傳燈錄(1682)

刻手名	板刻 經典	刻手名	板刻 經典
敬訓	楞嚴經(1682),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1682), 景德傳燈錄(1682)	奉先, 金	刪補梵音集(1713)
戒湜	景德傳燈錄(1682)	休豈	刪補梵音集(1713)
戒弘 (界弘)	景德傳燈錄(1682), 禪源諸詮集都序(1680)	朔夫里, 金	禪源諸詮集都序(1740)
廣淳	禪家龜鑑(1612)	三彥	楞嚴經(1682), 景德傳燈錄(1682)
廣津	景德傳燈錄(1682)	三哲, 金	禪源諸詮集都序(1680), 景德傳燈錄(1682)
宏界	虛白集(1669)	尙熙	景德傳燈錄(1682)
克直, 申 (極直 申)	禪源諸詮集都序(1612), 禪家龜鑑(1612)	生立, 金	禪源諸詮集都序(1680), 金剛經(1680)
亘說	三門直指(1769)	瑞明	隨求陀羅尼(1729), 玉樞經(1733)
女得玉	刪補梵音集(1713)	瑞元	景德傳燈錄(1682)
大順, 梁	景德傳燈錄(1682)	釋等伯	三門直指(1769)
大義	高峰和尙禪要(1573)	釋文贊	三門直指(1769)
道信	楞嚴經(1682), 景德傳燈錄(1682)	釋普瓊	三門直指(1769)
道欽	刪補梵音集(1713)	釋心快	三門直指(1769)
得英, 朴	刪補梵音集(1713)	石岩, 金	禪源諸詮集都序(1680)
良彥	刪補梵音集(1713)	釋遠	景德傳燈錄(1682)
獐, 金	禪源諸詮集都序(1680), 景德傳燈錄(1682)	釋再信	三門直指(1769)
万香, 朴 (萬香 朴)	景德傳燈錄(1682), 禪源諸詮集都序(1680)	釋定正	三門直指(1769)
明哲	刪補梵音集(1713)	釋處心	三門直指(1769)
妙純	高峰和尙禪要(1573)	善祐	三門直指(1769)
妙哲	三門直指(1769)	善洽	景德傳燈錄(1682)
武石, 金	楞嚴經(1682), 景德傳燈錄(1682)	雪淳	三門直指(1769)
文益	三門直指(1769)	性律	虛白集(1669)
文禮	景德傳燈錄(1682)	性彥	景德傳燈錄(1682)
方六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1682), 景德傳燈錄(1682), 妙法蓮華經(1691)	聖澄, 金	景德傳燈錄(1682), 禪源諸詮集都序(1680)
法明	高峰和尙禪要(1573)	性學	佛祖宗派之圖(1688)
法明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1680)	世元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1680)
法律	景德傳燈錄(1682)	松山, 張	景德傳燈錄(1682)
守軒	景德傳燈錄(1682),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1682)	自英	禪源諸詮集都序(1680),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1680), 景德傳燈錄(1682)
勝俊	刪補梵音集(1713)	自賢	景德傳燈錄(1682)
信戒	景德傳燈錄(1682)	藏六	佛祖宗派之圖(1688)
信哲	景德傳燈錄(1682)	淨雲	三門直指(1769)
		淨益	月渚堂大師集(1717)

刻手名	板刻 經典	刻手名	板刻 經典
双運	景德傳燈錄(1682)	丁日, 尹 (廷日 尹)	禪源諸詮集都序(1680), 金剛經(1680), 景德傳燈錄(1682), 楞嚴經(1682)
信會, 李	禪家龜鑑(1612), 禪源諸詮集都序(1612)	淨慧	佛說大目蓮經(1735)
		智翠	楞嚴經(1682), 景德傳燈錄(1682)
億岩面, 韓	禪源諸詮集都序(1680), 景德傳燈錄(1682)	智玄, 李	禪源諸詮集都序(1680), 預修十王生七齋 儀纂要(1680)
永, 金	景德傳燈錄(1682)	眞祥	禪家龜鑑(1612), 禪源諸詮集都序(1612)
汝軒, 崔	景德傳燈錄(1682), 禪源諸詮集都序(1680)	僅信, 金	景德傳燈錄(1682)
		僅英	景德傳燈錄(1682)
永吉, 朴	景德傳燈錄(1682)	處澄	雪巖雜著(1710)
灵悟 (靈悟)	景德傳燈錄(1682), 楞嚴經(1682)	天玉	禪家龜鑑(1612),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1612)
灵元	景德傳燈錄(1682)	天屹	楞嚴經(1682), 景德傳燈錄(1682)
灵印	景德傳燈錄(1682)	楚潤	三門直指(1769)
灵贊	景德傳燈錄(1682)	忠京, 白 (忠敬 白)	禪家龜鑑(1612), 禪源諸詮集都序(1612),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1612)
礼云, 方	景德傳燈錄(1682)	双彦	禪源諸詮集都序(1680), 景德傳燈錄(1682)
元甘	景德傳燈錄(1682)	坦英	諸眞言集(1688)
元默	禪源諸詮集都序(1680),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1680)	坦佑	景德傳燈錄(1682)
		退仁	禪家龜鑑(1612)
元惠	景德傳燈錄(1682), 大乘起信論疏(1682)	學明	緇門警訓(1549)
		學淳	三門直指(1769)
月印	刪補梵音集(1713)	學植	禪宗永嘉集(1573)
有一	三門直指(1769)	學祖	高峰和尚禪要(1573)
裕楚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1682), 梵網經(1683)	漢俊	禪源諸詮集都序(1740)
應河, 朴	景德傳燈錄(1682), 楞嚴經(1682),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1682)	玄益 (賢益)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1680), 楞嚴經 (1682), 刪補梵音集(1713), 金剛般若經 疏論纂要助顯錄(1682)
儀善, 金	景德傳燈錄(1682)	惠元, (惠遠)	大乘起信論疏(1682), 景德傳燈錄(1682), 梵網經(1683)
義淳	禪宗永嘉集(1573)		
義日 (義一)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1612), 禪家龜鑑(1612)	惠仁	禪源諸詮集都序(1612)
		惠特, 李	禪源諸詮集都序(1680), 預修十王生七齋 儀纂要(1680)
日雲	緇門警訓(1549)	孝吉, 申	禪源諸詮集都序(1680), 預修十王生七齋 儀纂要(1680), 金剛經(1680)
日清	禪源諸詮集都序(1680)		
一玄 (日玄)	禪家龜鑑(1612), 禪源諸詮集都序(1612),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1612)	宝行	楞嚴經(1682), 景德傳燈錄(1682)
		興奎, 韓	禪源諸詮集都序(1740)
		興周, 吳	禪家龜鑑(1612)

6. 結 言

묘향산 보현사는 조선시대 북한 지역의 사찰 중 가장 많은 경전이 간행된 곳이다. 본고는 보현사에서 간행된 45종의 현전 판본을 주제별, 시기별 및 각수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한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제별로는 經典部 8종(18%), 宗義部 19종(42%), 禮懺部 8종(18%), 文集部 8종(18%), 기타 2종(4%)로 나타나 宗義部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宗義部는 모두 禪宗 계통의 경전이다.

2. 간행 시기는 모두 16-18세기로, 16세기 9종(20%), 17세기 18종(40%), 18세기 18종(40%)로 나타났으며, 16세기의 1551-1575년, 17세기의 1676-1700년, 18세기의 1726-1750년에 집중되어 전체의 약 67%를 차지한다. 특히 1680년대의 판본이 전체의 약 31%로 가장 많았다.

3. 普賢寺로 옮긴 經板은 대부분이 內院庵, 普潤庵, 華藏庵 佛影臺 등의 山內末寺에서 판각하였지만 『雪巖亂藁』의 경우 강원도에 고달산의 사찰에서 판각하여 옮겨오기도 하였다.

4. 普賢寺 本寺에서는 크게 3기에 걸쳐 開板하였다. 第1期는 1560년대, 第2期는 1680년대, 第3期는 1730년대이다. 그 중 2기에 해당되는 1680년대에는 주요 大乘經典과 禪宗關聯書 12종 이상을 대대적으로 간행하였으며, 판각 작업은 사찰 각수뿐만 아니라 各道에서 적게는 2명, 많게는 14명의 각수가 참여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5. 18세기 초중엽 보현사의 대표적인 刻手인 ‘別訓’은 僧將 출신으로 각수 중 중추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月渚堂大師集』(1717)부터 『禪源諸詮集都序』(1740)까지 7종의 판본에 각수로 기록되어 있어 최소 1717년부터 1740년대까지 20여년 이상을 각수로 활동하였다. 특히 1732년 普賢寺 開刊本인 『虛靜集』에는 ‘刊工 通政大夫前僧將’이라 기록되어 그는 僧將 출신의 通政大夫였음이 확인되었다.

<참고문헌>

「東師列傳」.

「新增東國輿地勝覽」.

「朝鮮王朝實錄」.

國學資料保存會. 「國典籍綜合目錄(第1輯): 山氣文庫目錄 -李謙魯藏-」. 서울: 國學資料保存會, 1974.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서울: 新文館, 1918.

寧邊郡. 「名勝之寧邊」. 1929.

寧邊郡民會. 「寧邊誌」. 1971.

尹炳泰, 鄭亨愚. 「韓國의 冊板目錄」. 서울: 保景文化社, 1995.

朝鮮總督府內務部地方局. 「朝鮮寺刹史料」. 京城: 朝鮮總督府內務部地方局, 1911.

韓國佛教研究院. 「한국의 사찰17 - 북한의 사찰」. 서울: 일지사, 1978.

韓國佛教宗團協議會. 「北韓寺刹研究」. 서울: 寺刹文化研究院, 1993.

許興植. “普賢寺古今事蹟과 妙香異蹟의 史料價値.” 「精神文化研究」第24輯 (2001). 129-142.

許興植. “延世大所藏 妙香山資料의 價値.” 「新羅文化」第19輯(2001). 291-300.

許興植. 「한국 신령의 고향을 찾아서」. 과주: 집문당, 2006.

